

전향자로서 자기 증명과 휴머니즘

- 해방 이후 박영준의 글을 중심으로 -

이 병 주*

차 례

1. 서론: 해방 이후 전향자의 위치
2. 친일행적 소거와 백철의 ‘신윤리’ 호명
3. 문학의 정치성과 고뇌하는 인간
4. 반공 수사(修辭)와 윤리의식
5. 결론

<국문초록>

이 연구는 해방 이후 박영준의 글과 행적을 검토하여 그가 ‘전향자’로서 ‘자기 증명’을 해야 했던 과정과 그가 추구했던 문학적 방법론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해방 이후 박영준은 세 번의 ‘자기 증명’을 하게 된다. 첫 번째는 일제강점기 친일행적으로 인한 ‘자기 증명’이다. 수필을 통해 자신이 일제강점기 때 작품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자신의 친일행적을 소거한다. 더불어 일제에 부역했던 「환향」의 주인공을 등장시켜 자신의 친일행적을 정당화한다.

두 번째 ‘자기 증명’은 좌익 활동을 했던 경험 때문에 발생한다. 박영준은 ‘중간파’로 명명될 정도로, 적극적인 좌익 활동을 하진 않는다. 그는 그 과정에서 해방 이후 새로운 문학적 방향 탐색하는데, 백철의 “신윤리”의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박영준은 인간적 고뇌와

* 공군사관학교 조교수

인간관계를 고민하는 휴머니즘적 방법론으로 작품을 창작한다.

마지막으로 한국전쟁 발발 당시 북한 괴뢰군의 포로로 잡혀 노역했던 경험 때문에 발생한 ‘자기 증명’이다. 이는 『노예의 노동생활』에서 보여준 반공 수사(修辭)를 통해 진행된다. 이후 종군작가단에서 근무하게 되며, 종군작가단의 구성원 중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여준다. 이 당시 『전선문학』을 통한 ‘선전’ 활동으로 인해 자신의 작품에 적극적인 윤리의식을 반영하진 못하지만, 『용초도근해』를 통해 반공 수사(修辭)와 결합된 윤리의식을 보여준다. 이처럼 박영준은 해방 이후 ‘자기 증명’ 과정에서 인간성의 회복을 고민하는 휴머니즘적 방법론을 발전시키고 추구했다.

* 핵심어 : 박영준, 자기 증명, 전향, 휴머니즘, 선전, 백철, 신윤리.

1. 서론: 해방 이후 전향자의 위치

해방 이후 이념 갈등이 폭발한 결과로 한국전쟁이 발발하기까지 문단에서는 이념 대결이 지속되고 있었다.¹⁾ 급변하는 정치 상황 속에서 일제강점기와 같이 ‘전향’한 문인들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김윤식은 1930년대 전향자인 박영회를 분석하며, ‘전향’을 두 가지로 구분한다. 그의 구분에 따르면 ‘전향’은 “권력에 의해 강제되어 일어나는 사상의 변화”와 “자기(自己) 성장에 의한 사상의 굴절(屈折)”²⁾로 나눌 수 있다. 김인옥은 일제강점기의 ‘전향’이 “사상의 선택문제이기 이전에 본능인 생존문제에서 비롯된 것”이지만, “천황제로 귀속되는” “반민족적 행위”³⁾이었다고 주장한다.

남한 단독정부가 수립된 이후 남한에는 반공 이데올로기가 자리 잡기 시작하였고, 43사건, 여수·순천 사건 등을 거치며 좌익 문인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그 기로의 한쪽은 점점 좁아지고 있었는데, 그 이유는 단독정부가 수립되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1949년 6월 국민보도연맹이 조직되고 그들이 본격적으로 좌익 계몽 활동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국민보도연맹의 적극적인 활동은 좌익 문인들의 활동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었다. 국민보도연맹이 좌익 문인들을 통제할 수단은 “단정 이후 단행된 문맹 맹원에 대한 체포령, 좌익 문인에 대한 등급화, 저작 활동과 저서 판매금지(1949.11.8.), 전향작가 작품 사전 심사(1949.11.29.), 중등교과서의 좌익작가 작품 삭제 등”⁴⁾이 있었다. 이처럼 우익과 좌익의 이념 갈등은 단독정부 수립 이후 우익의 폭력적이고 일방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1)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박민규, 『해방기 시론의 구도와 동력』, 서정시학, 2014, 참조.

2) 김윤식, 『한국근대문학사상비판』, 일지사, 1978, 229면.

3) 김인옥, 『한국 현대 전향소설 연구』, 국학자료원, 2002, 41면.

4) 서동수, 『한국전쟁기 문학담론과 반공프로젝트』, 소명출판, 2012, 14면.

이와 같은 상황에서 발생한 해방 이후 ‘전향’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단독정부 수립 후 ‘전향’의 특수성을 1930년대 ‘전향’과의 비교 분석한 이봉범에 따르면, 1930년대 전향은 “동요와 모색의 형태가 주류”였고, “비공식적인 전향”이었던 반면, 단정 수립 후 전향은 “포섭-배제의 논리구조에 입각한 위계화된 반공국민 만들기”이자 “국민보도연맹”의 의무가입을 통한 “공식적인 전향”이었다.⁵⁾ 조은정은 이봉범의 ‘전향 공간’이라는 개념을 차용하여 해방기 ‘전향’의 구조와 ‘전향성명서’를 분석한다. 조은정은 그 과정에서 이승만의 담화(1948.9.5.)를 시작으로 제주 4·3사건, 여순사건과 같은 폭력적인 사건들이 이승만 정부의 반공체제와 결합하며, 반공체제를 지지하는 ‘선량한 국민’의 형성과 ‘전향’을 통한 사상통제가 일어났음을 발견했다.⁶⁾

박영준 또한 ‘전향’을 한 작가이다. 박영준은 1934년 연희전문학교를 졸업 후 『신동아』 현상소설 모집에 장편 『일년』이 당선되고, 『조선일보』 신춘문예에는 단편 『모범경작생』이, 『신동아』에는 콩트 『새우젓』이 동시에 당선되며 문단 활동을 시작하였다. 당시에는 파격적이었던 동시 당선이라는 타이틀에도 불구하고 박영준은 쉽게 직장을 구할 수 없었다. 취직 문제로 고민하던 도중 간도에 있는 중학교에서 근무하게 되었으나, 1935년 ‘독서회’ 사건으로 일본 경찰에게 체포되어 약 5개월간 유치장 생활을 하기도 하였다. 1938년에는 만주 반석현으로 이주하여 교직 생활을 하다가 1945년 해방 이후 만주에서 귀국하였다. 귀국 이후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와 ‘문학가동맹’에서 활동했지만, 단정 수립 이후 ‘전향’을 선언한다. ‘전향’을 선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한국전쟁이 발발하였고, 피난을 가지 못하여 북한 괴뢰군에게 잡혀 노역을 경험한 뒤 유엔군이 다시 서울을 수복하고 평양으로 진격한 틈에 도망쳐서 서울에 오게 된다. 그 뒤엔 종군작가단에 들어가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며 소설을 발표하였다. 여기까지가 휴전협정 이전까지의 박영준의 문

5) 이봉범, 『단정수립 후 전향의 문화사적 연구』, 『대동아문화연구』 제64집, 성균관대학교 대동아문화연구원, 2008, 220-221면.

6) 조은정, 『해방 이후(1945~1950) ‘전향’과 ‘냉전 국민’의 형성 ‘전향성명서’와 문화인의 전향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27-31면.

학 연보이다.

박영준을 연구한 선행연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식민지시기 농민소설에 관한 연구⁷⁾, 만주 서사에 집중하여 살펴본 연구⁸⁾, ‘전향’한 작가로서 반공 이데올로기의 양상을 살펴보거나 전쟁소설의 작가로서 작품을 살펴본 연구이다.⁹⁾ 이 글은 선행연구의 성과를 이어받아 박영준의 ‘전향’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 수필·평론·소설을 “고백적 글쓰기”¹⁰⁾의 차원에서 해석해보고자 한다. ‘전향’에 대한 여러 선행연구 중 박영준의 ‘전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손혜민, 한홍화, 반재영의 글은 특기할만하다. 손혜민은 박영준의 해방기 작품을 ‘전향’자의 주체 구성이라는 측면에서 고찰한다. 이 과정에서 박영준이 ‘전향’ 이후 ‘정치’에 대응하는 ‘생활’의 윤리를 통해 ‘무력함’을 표출했다고 본다. 한홍화는 박영준의 해방 전후 만주 서사의 의미를 고찰한다. 박영준이 협화회에 근무했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해방 이후 만주 서사는 식민지 시기 민족의 서러움을 주제로 민족을 강조하는 형태로 등장한다는 사실을 발견한다. 반재영은 ‘적’에 대한 재현이 ‘청년’으로 형상화되어 있으며, 박영준의 경우 『빨치산』에서 빨치산을 미성년의 자폐성, 귀순을 개인사적 성장으로 표현했다고 해석한다. 선행연구들은 각 시기의 박영준 소설의

7) 권영기, 『박영준의 농민소설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7, 박윤자, 『박영준 농민소설 연구』, 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8) 서영인, 『박영준 문학과 만주: 박영준 문학세계의 연속성 탐구를 위한 시론』, 『한국근대문학회』 제12집 2호, 한국근대문학연구, 2011, 65-94면.; 한홍화, 『박영준 해방 전후의 만주서사와 그 의미』, 『한민족문화연구』 제50집, 한민족문화학회, 2015, 39-67면.; 김종욱, 『박영준의 만주 체험과 귀환소설』, 『한국현대문학연구』 제58집, 한국현대문학회, 2019, 339-362면.

9) 신영덕, 『박영준의 전쟁소설 연구』, 『개신어문연구』 제22집, 개신어문학회, 2004, 345-372면.; 손혜민, 『단정 수립 이후 ‘전향’과 문학자의 주체구성: 박영준의 해방기 작품을 중심으로』, 『사이(SAI)』 제11권,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11, 163-191면. 김종욱, 『강서 적색농민운동과 박영준: 『일년』을 중심으로』, 『구보학보』 제22집, 구보학회, 2019, 369-391면. 반재영, 『붉은 청년과 반공의 교양: 한국전쟁기 젊은(적)의 재현과 성장(전향)의 서사』, 『한국문학연구』 제65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21, 257-306면.

10) 서동수, 앞의 책, 27면.

핵심적인 부분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만 해방 이후부터 중군작가단활동을 마칠 때까지 박영준의 작품의 핵심을 아우르고 있는 연구가 없어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 해방 이후는 다양한 사건과 많은 변화가 있었으므로 모든 것을 포괄하여 해석하긴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에서는 해방 이후부터 중군작가단활동을 마칠 때까지 박영준 문학에서 일관적으로 다루고 있는 문학적 지향을 여러 번의 ‘전향’과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해방 후 문단을 여러 작가의 회고를 통해 연구한 김준현은 김기진과 백철의 경우 “‘카프 경력’, ‘친일 경력’, ‘해방기 때의 문건 활동 경력’” 등을 공유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이력을 지우기 위해 “자기서사”를 통해 “카프 가입 및 활동의 의미를 재구축”했다고 해석했다.¹¹⁾ 박영준 또한 김기진과 백철처럼 역사적 격변기에서 여러 번의 정치적 사건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과 같은 과정을 피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김준현의 논의를 일부 이어받아 박영준이 ‘전향’한 이후 발표한 수필·평론·소설에서 발견되는 “자기서사”를 전향자의 ‘자기 증명’이라고 명명하고자 한다. 여기서 ‘자기 증명’이란 자신의 사상이 과거와 다름을 증명하는 과정을 일컫는다.

그렇다면 김준현이 주장하는 “자기서사”와 이 글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기 증명’이 어떻게 다른지 논할 필요가 생긴다. 여기서 김준현이 말하는 “자기서사”는 “실제로 일어나거나 경험했던 사건들뿐 아니라, 그 사건(혹은 서사적 관점에서 보면 모티프)들 사이에서 연관성과 맥락을 구축하는 연결고리들”이다. 이러한 “자기서사”는 김기진과 백철의 행적을 “재의미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며, “문학 장 내 담론투쟁의 한 형태”를 의미한다.¹²⁾ 이처럼 김기진과 백철의 “자기서사”는 자신의 행적에 대한 ‘재구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반면 이 글에서 살펴볼 박영

11) “이들은 자신들의 과거사를 어떤 식으로든 청산하여 그로부터 단절을 선언하거나, 그에 대한 ‘알리바이’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되었다”고 주장한다. 김준현, 『1950년대 전향자: 문인의 자기서사 재구성 양상』, 『현대문학의 연구』 제64집, 한국문학연구학회, 2018, 7-38면.

12) 위의 글, 8-14면.

준의 ‘자기 증명’은 자신의 행적에 대한 ‘반성’과 사상적 변화에 대한 ‘증언’의 성격을 갖는다. 그가 ‘반성’과 ‘증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전향’했다는 사실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사상검증’에 대한 요청 때문이다. 박영준의 작품은 사상을 증명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것처럼 보인다. 이처럼 이 글에서 주장하는 ‘자기 증명’은 전향자의 생존에 맞닿아 있는 것이다. 자신의 서사를 재구성하거나 문장 내 담론투쟁의 관계에서 파악되는 ‘자기서사’와는 엄연히 구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박영준은 해방 이후 총 세 번의 ‘자기 증명’을 해야 했다. 첫 번째는 해방 직후 일제 부역 문제와 관련 있는 ‘자기 증명’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박영준이 만주에서 생활할 당시 ‘협화회’에 가담한 기록이 발견되었다. 해방된 이후 일제에 부역했던 작가들은 자신의 친일행적을 숨기거나 고백 후에 반성하는 과정을 진행한다. 하지만 박영준의 경우 고백 및 반성의 과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당시에는 친일행적이 구체적으로 밝혀지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자신의 친일행적이 공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자신을 괴롭히는 죄의식은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해방 직후 발표된 「환향」이라는 작품을 통해 나타난다.

두 번째로 해방 직후 만주에서 귀국하여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와 ‘문학가동맹’에서 활동했던 사실과 관련된 ‘자기 증명’이다. 박영준은 단정 수립 이후 보도연맹이 진행한 전향 선언에 동참한다. 이 당시 많은 좌익 작가들이 폭력적인 우익의 행보에 어쩔 수 없는 ‘전향’했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연구에서 밝히고 있다. 박영준의 경우는 ‘중간파’라고 불리며 적극적인 좌익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평가받았다. 그는 좌익이나 우익이라는 정치적 상황이 아닌 문학적 지향점을 찾아 헤맸던 것으로 보인다. 그 근거는 박영준의 「문학가의 성실」이란 글과 백철의 “신윤리”와의 연관성 그리고 박영준의 소설 「풍작」, 「회심기」, 「윤락설」 등에서 발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진행된 ‘자기 증명’은 한국전쟁 발발 후 서울을 탈출하지 못하고 괴뢰군에게 붙잡혀 노역을 한 경험 때문에 발생한다. 박영준은 간신히 북한 괴뢰군에게서 구출되지만, 공산주의자들 속에서 세뇌당하

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했다. 이 과정은 ‘잔류파’의 자기 증명과 다르지 않은 형태였을 것이다. 그는 자신이 공산주의 사상에 복속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전선문학독본』에 ‘종군기’를 발표한다. 그 이후 대구 피난 시절 우연히 참여하게 된 종군작가단 활동에 열을 올린다. ‘종군’이라는 행위와 더불어 육군종군작가단의 기관지인 『전선문학』에 글을 쓴다는 것은 명확한 ‘자기 증명’을 가능하게 했다. 『전선문학』의 경우 발간 목적이 분명했고, 그곳에 실린 글과 작품의 주제의식도 명확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박영준은 끊임없이 자신의 사상을 증명해야 하는 순간을 마주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박영준이 ‘전향’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문학을 도구로 사용한 양상에 대해 살펴보고, 이를 ‘자기 증명’의 과정으로 명명하고자 한다.¹³⁾ 동시에 그가 진행한 여러 번의 ‘전향’을 연속선 상에서 살펴보고 박영준의 작품과 수필을 통해 그의 문학적 추구를 밝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2. 친일행적 소거와 백철의 ‘신윤리’ 호명

해방 이후 백철에 의해 ‘중간파’라는 이름을 얻긴 하였지만, 그의 생애는 정치적으로 ‘중간파’에 위치할 수 없었다. 이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일제강점기부터 정치적 사건에 연루됐기 때문이다. 그에게 가장 큰 트라우마를 남긴 사건은 ‘독서회’ 사건이었다.¹⁴⁾ 추후 자

13) 여기서 ‘도구’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당시 문학을 정치적 선전 도구로 사용한 좌익의 태도와 관련 없음을 미리 밝힌다.

14) 김종욱은 박영준이 회고하는 ‘독서회’ 사건을 그의 고향에서 있었던 “강서적색농민운동”과 연관지어 설명하고 있다. 김종욱에 따르면 박영준이 참여했던 비밀결사 “동인구락부”와 연결된 “강서적화사건”은 이후 “조선공산당 재건운동과 맥을 함께하는 중대한 사건”이었다. 그는 “동인구락부” 초기에는 연회전문에 진학하여 서울로 상경했기 때문에 조직에 깊이 관여하진 못했지만, 이후 연회 전문을 휴학한 후 귀향한 뒤 다시 “동인구락부”와 연결되었다. 이 당시의 경험은 박영준의 초기 농민소설에 큰 영향을 주었다. 김종욱,

신의 전기적 사실을 작품화한 『전사시대』에서 서술하고 있듯이 ‘독서회’ 사건은 “영터리 같은 사건”이었지만, “죽지 말아야 한다”¹⁵⁾는 공포를 강하게 심어주었다. 이때 느꼈던 공포감 때문인지 박영준이 가지고 있던 특유의 생활력 때문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가 친일단체에 가담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¹⁶⁾ 그 근거는 『만선일보』에 실린 박영준의 글에서 “협화회반석현본부근무”¹⁷⁾로 적힌 약력인데, “협화회”는 “1935년을 전후로 “내지동화를 기조”로 “황민화정책”을 진행하는 일본 단체였다.¹⁸⁾ 이 단체는 박영준의 작품에서도 “일본이 만주에서 융화정책을 실천한 기관”¹⁹⁾으로 등장한다. 박영준이 느끼는 두려움은 해방 이후 일제에 부역했던 사람을 처단하라는 목소리와 함께 더욱 커졌을 것이다.

당시 박영준의 상황과 비슷하게 친일행적이 노출될까 두려워서 전전긍긍하는 인물이 등장하는 소설이 있다. 바로 그가 1946년 『우리문학』에 발표한 『환향』이라는 작품이다. 『환향』의 주인공은 소설가를 꿈꿨지만, 일본의 징용이 무서워서 면사무소 서기 노릇을 한다. 하지만 해방이 되자 면사무소에서 일했던 경험 때문에 마을 사람들에게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시달리다가, 죄책감을 견디지 못하고 서울로

앞의 글, 381-383면.

15) 박영준, 『전사시대』, 『만우 박영준 전집 4』, 동연, 2002, 537면.

16) 김종옥은 박영준의 “만주행은 일제와의 협력을 전제로 한 것이었”으며, “만주에서 머무는 칠년동안 줄곧 협화회에서 활동”했다고 주장한다. 김종옥, 앞의 글, 384면, 참조

17) “『협화회교하분회(協和會蛟河街分會)』로 옮겨 만주국 관리의 길로 들어섰다”(표언복, 『역사적 폭력과 식민지 지식인의 주체분열: 박영준 소설의 ‘만주’ 인식 방법』, 『어문학』 제104집, 한국어문학회, 2009, 186면.). “1940년 1월 24일자 <만선일보>에 실린 글 『현단계의 진실한 비평과 발표기관의 기대』의 맨 끝머리 약력에 모두 “현재 협화회반석현본부근무”로 적혀있다는 점, 그리고 싹트는 대지 (1941)에 수록된 소설 『밀립의 여인』 앞부분에 “도만 후 협화회 회무직원 근무, 현재 협화회 교하분회에 근무”로 기록되어 있다는 점”(한홍화, 앞의 글, 52면.)

18) 기무라 겐지, 『협화회 연구의 성과와 과제』, 『한일민족문제연구』 제34집, 한일민족문제학회, 2018. 365면.

19) 박영준, 『죽음의 장소』, 『만우 박영준 전집 6』, 동연, 2002, 424면.

도피한다. 서울에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수 있는 정당을 찾아 헤매던 주인공은 미군의 차에 치여 병원에 입원하게 된다. 주인공은 고향에 있는 어머니와 친구 M에게 자신이 있는 병원을 알린 뒤,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고향 사람들의 처분을 기다린다. 하지만 고향 사람들이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는 다르게 고향 친구 M은 주인공에게 새 출발을 제안한다.

「일이라니? 내가 무슨 일을 한담 일본정신에 빠졌든 놈이—」

「그게 당연한 생각이야—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전부가 새건설의 일에서 손을 떼다면 우리 일은 누가 하겠나? 그것두 정도 문제이겠지만 자네야 그리 못할 짓도 하지 않았으니까—그동안 면사무소에서 두어사람은 큰 욕을 보왔고 주재소경관 노릇하던 친구는 지금 팔다리를 못쓰고 누어있으나 자네를 찾으려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 같데—좌우간 우리와 같치 일해볼 생각이 있나?」(…중략…) 「지금 우리는 인민위원회를 조직하고 또 농민조합을 조직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 농민들이 이때까지 빚한 소작료를 주고 굶주려 살든 데서 구해내려고 새소작료를 정산하기도 하고 지방의 치안을 확보하려고 치안대도 조직했다. 누가 명령한다기보다 다 같치 해야 할 일이 아닌가—」

M은 설교하듯 말했다. 고마웠다. 그 자리에서 승낙하고 싶었다. 내게 진정에서 나오는 말을 해준 첫 사람이다.

농민—군중—이때까지 명령과 압박에서만 살든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진정한 활동—그것은 확실히 내 과거를 청산하는데 가장 필요한 요소가 아닌가

서울서 정당에 가입을 하거나 소설가를 찾아가는 것보다도 가장 진실된 길이다.²⁰⁾

소설의 구성은 단순하지만, 주인공과 친구 M의 인식에 주목해보자. 이 두 등장인물은 다른 인물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동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 먼저 두 인물은 일제에 부역한 죄를 타인과 비교하여 축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주인공의 경우 “징용을 면하기 위해 면서기노릇”을 했다는 변명과 함께 “노무일이나 공출일”²¹⁾을 보지 않아서 마을 사

20) 박영준, 『환향(還鄕)』, 『우리문학』 2, 39면.

람들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안도한다. 친구 M도 친일의 “정도 문제”를 앞세워 “면사무소”에 다른 직원들과 “주체소 경관”을 언급하며 주인공의 죄는 별일이 되지 않음을 역설한다. 두 번째로 민중에 대한 계몽적인 태도를 공유하고 있다. 주인공은 자신이 일제에 부역했다는 사실보다 더 크게 괴로워 하는 것은 “이 민중에게 바른길을 못 가르키고 그들로 하여금 나와 같은 생활을 하도록 종병했다는데”²²⁾ 있다. 이 부분에서 주인공이 마을 사람들과 농민들을 계몽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친구 M도 “인민위원회”를 조직하여 농민을 “굶주려 살든 데서 구해내려고” 한다. 결국 주인공은 “농민—군중”을 “살리기 위한 진정한 활동”이라는 평가와 함께 친구 M의 제안을 승낙한다. 또한 주인공은 “삼천만이 있는 힘을 다해서 조선 독립에 부축을 해야 할 것이고 다 가치 제 기능을 발휘”²³⁾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때 친일 여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친구 M 또한 “전부가 새 건설일에서 손을 뗀다면 우리 일은 누가하느냐”고 물으며, 주인공을 설득한다. 이는 박영준이 초기 농민소설에서 보여주었던 “자신들의 계급적 요구를 엘리트 지식인에게 위임하지 않는”²⁴⁾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박영준의 『환향』은 간단한 구성과 함께 교조적인 어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박영준이 만주에서 일제에 부역했던 사실을 축소하고 은폐하는 하기 위해 소설을 이용한 것처럼 보인다. 비슷한 시기의 박영준의 다른 소설들에서도 자신이 있었던 만주 공간을 통해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독자들의 공감대를 자극하고 재만조선인들에 대한 동정심과 민족의식을 유발시켜 작가의 과거는 어느 정도 무마”²⁵⁾시키려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소설뿐만 아니라 다른 글에서도 자신이 일제 당시에 작품활동을 하지 않은 것처럼 서술한다.

21) 위의 글, 33면.

22) 위의 글, 36면.

23) 위의 글, 33면.

24) 김종욱, 앞의 글, 387면.

25) 한홍화, 앞의 글, 52-53면.

일제시대에는 작품행동을 쉬었기 때문에 차라리 붓의 고민을 몰랐든 것이지만 지금은 쓰고 싶은 의욕에 정비례해서 붓대가 나가지를 않는다. (…중략…) 결국은 소시민의 생○을 토○로 새세대에 부합되는 새로운 모—럴을 작품화해 보는 수밖에 없다 하기가 어떠한 작품을 만들 수 있을런지는 모르지만 해방 후 새 조선이 가져야 할 새로운 모—럴의 확립이란 것이 문학하는 사람의 어깨에도 적지 않은 짐으로 질머지어 있다면 내가 앞으로 쓸 작품도 그리 의의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자위하는 바이다”²⁶⁾

그는 1948년 12월 쓴 『나의 문학생활자서』에서 자신은 “일제시대 작품행동을 쉬었”다고 밝힌다. 이는 자신의 친일행적을 의도적으로 소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군다나 자신이 “소시민”을 중심으로 “새세대에 부합되는 새로운 모—럴을 작품화”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작가인 것처럼 묘사한다. 이는 작가로서의 자의식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자신이 작품활동을 지속해야 할 당위성을 스스로 부여하는 행위라고도 할 수 있다. 이는 1974년 『연세춘추』에 20회 연재된 『자전문학론』에도 그대로 나타난다.²⁷⁾ 그에게 작품 활동은 『환향』의 주인공처럼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진정한 활동”인 것이다.

이처럼 자신의 일제강점기 활동을 작품과 수필을 통해 소거하며, 자신의 문학적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노력한다. ‘문학가동맹’ 활동과 같은 정치 참여도 그 일환이었을 테지만, 더 이상 농민소설을 쓸 수 없었던 상황으로 볼 때 그에게 새로운 문학적 방향 성립이 절실했다. 이를 위해 박영준은 ‘백철’을 호명한다. 그는 『나의 문학생활자서』에서 박영준이 “처녀작품으로 발표하기 직전부터 백철씨의 지도(指導)를 받았”²⁸⁾다고 언급한다. 이를 단순한 수사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박영

26) 박영준, 『나의 문학생활자서』, 『백민』 14, 1948.05.01, 116면.

27) “한때는 일제의 동화정책으로 우리의 언어를 쓰지 못하게 하여 할 수 없이 붓을 쥐고 작품 생활을 중단한 때도 있다.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작가가 타의에 의해 작품을 못 쓴다는 것은 생명을 뺏기는 것과 같은 일이다. 그러나 나는 해방이 되니 나는 많은 작품을 썼다.” 박영준, 『자전문학론』, 박기동 외, 『황소걸음: 스승 만우 박영준을 기리며』, 동연, 2008, 349면.

28) 박영준, 『나의 문학생활자서』, 『백민』 14, 1948.04, 117면.

준이 이어서 “새로운 모—럴”을 언급했다는 사실로 볼 때 다분히 의도적인 언급이 아니었을까 한다. 당시 백철은 『백민』에 『신윤리 문학의 제창』(1948.3), 『신윤리의 개척과 신인간의 창조』(1948.4)를 발표하여, 좌우 대립이 아닌 새로운 길을 찾아보려고 노력 중이었기 때문이다. 백철은 “신윤리”를 “자율적 정신”이자, “불합리에 대하여 그것을 적발하는 문학”²⁹⁾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지점에서 박영준이 백철을 언급한 이유를 추측해볼 수 있는데, 그는 백철의 “신윤리”를 자신의 “새로운 모—럴”로 연결할 가능성을 엿본 것 같다.

『생활 단편』 박영준(백민) 곤이학지(困而學之)하는 작가 그래서 이 작품 전반에서 심리적인 것을 오진하고 불필요한 것을 설명한 점 전작품에 통일한 결점을 학이미급(學而未及)으로 본다. 그러나 작자는 진실한 현실과 대할 때에 엄숙하려는 성실성을 보였다(가령 ○학서류를 팔려온 청년을 대하는 장면 같은 식) 혼란한 주위에서 자기를 구하려고 윤리적인 것을 구하였다. 그 신윤리는 아직 오리무중(五里霧中)의 미성형이다. 그러나 작자는 근작 몇편을 통하여 꾸준히 체계적인 것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현실에 불구하고 새것을 찾으려는 것은 귀중한 작가의 현대정신이라고 본다.³⁰⁾

백철 또한 박영준의 『생활의 파편』을 결점에도 불구하고 “작자는 진실한 현실과 대할 때에 엄숙하려는 성실성을 보였다”고 언급하며, “혼란한 주위에서 자기를 구하려고 윤리적인 것을 구하였다”고 평가한다. 백철은 박영준의 최근 문학작품을 “신윤리는 아직 오리무중”이지만 “귀중한 작가 정신”이라고 하는데, 백철이 박영준의 작품에 대한 기대를 품고 있음을 알게 해준다. 이 당시 이러한 백철의 평가는 박영준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그는 해방 이전부터 사교적이

29) 백철, 「신윤리의 개척과 신인간의 창조」, 『백민』 14, 1948.04, 23면.

30) 백철은 『백민』에 실린 박영준의 작품을 평하고 있는데, 이 당시 백민에 수록된 박영준의 작품은 『생활의 파편』이다. 따라서 백철이 오기한 것으로 보인다. 백철, 「문학의 위기를 비판함: 정월 창작평에 대하여」, 『경향신문』, 1948.02.08.

지 못한 자신의 성격 때문에 문단의 냉대를 받고 있다고 생각했으며, 해방 이후 원고를 받아줄 지면을 찾기 위해 만났던 문인들에게 무시 받는 경험을 했다.³¹⁾ 이러한 상황에서 백철의 평가를 이어받아 『나의 문 학생활자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이후 박영준이 “새로운 모—털”이나 백철이 주장하는 “신윤리”를 어떻게 내면화하여 작품으로 승화했는가에 대한 문제가 남는다. 이는 해방 이후 박영준의 소설에서 등장하는 인간 다움에 대한 고민과 연관되어 등장한다.

3. 문학의 정치성과 고뇌하는 인간

해방 이후 귀국한 박영준은 해방 이후 급변하는 정치 상황에 발맞춰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에 자신의 이름을 올렸다.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는 해방 이후 가장 먼저 결성된 문학단체인 ‘조선문학건설본부’와 행동을 같이한 조직이다.³²⁾ 이후 박영준은 ‘조선문학가동맹’에서 활동하기도 하지만 정치적 상황은 다시 그가 있는 자리의 반대편으로 흘러간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단정 수립 이후 국가보안법이 제정되고 국민보도연맹이 조직된다. 그는 국민보도연맹이 조직된 이후 『자유신문』(1949.10.2.)을 통해 임호권, 박인환, 이봉구 등과 함께 ‘전향’ 선언문을 발표한다. 이 선언문에서 그는 “문학가 동맹을 비롯한 좌익계열에서 탈퇴”³³⁾를 공표한다. 혹자는 이러한 정치적 사건을 경험한 박영준을 ‘중간파’라고 명명을 하여 정치적 선호가 모호하거나 존재하지 않다고 해석한다. 이에 대한 해석을 가능하게 한 『문학인의 성실』이라는 글을 살펴보면, 그가 생각했던 문학의 정치성은 좌·우익이라는 사상이 아닌 ‘사

31) 박영준, 『역량과 문명: 문단에 나오기까지』, 『민고』 제5권 6호, 1949.06, 66면.

32)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은 흔히 좌익 계열의 문화단체로 논의되고 있지만, 최근 논의에서 ‘조선문화건설중앙협의회’의 실제 활동이 “비정치단체”이자 문화단체로서 문화운동에 기여하고, 통일 운동을 위해 좌우 연대를 실천”했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조은정, 앞의 글, 159면.

33) 위의 글, 186면.

람'에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물론 문학실천을 하기위한 정당한 그리고 순조로운 객관적환경을 만
들기위하여 혁명운동을 할때도 있을 것이다. 아 문학인뿐만 아니라 인민
모두가 그러야할 것이다. 그것을 무엇보다도 바라서마지않는 것이다. 사
회환경이 정당한길을 건지못할 때 올흔 문학이 생산되기는 불가능한일
이다.³⁴⁾

그러나 문학인은 그러한 정치활동을 작품행동에서 격리(隔離)시키여
실행할 수는 없다 (…중략…) 문학인도 나라를 사랑하고 사회를 사랑하
고 인민을 사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덮어놓고 정치를 하지말라는 것
은 사상을 갖지말라는 말이된다. 문학가동맹이 생기여 문학인전체가 그
산하로 모인듯하든 것이 요새 문필가협회의 탄생으로 문학인도 내분되
였다 응당(應當) 그럴 수 있는 일이다. 왜냐하면 문학인도 전부가 똑같
은 사상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서로 옳은 사상을 옳은 정열
(情熱)을 가지고 문학실천을 통하여 나라를 사랑하고 섬기 때문일 것이
다.³⁵⁾

박영준은 “성실”과 “정열”을 통한 “문학실천”을 강조하고 있는데, 당
시 우익문단의 주도적인 작가였던 조연현의 경우 “문학을 정치와 주의
에서 독립시키고 여하한 것도 침범할 수 없는 문학의 절대의 자유로운
기능”³⁶⁾을 주장한다. 반면 박영준은 “정치활동과 작품활동을 격리시키
여 실행할 수 없다”고 말한다. 이는 표층적으로는 좌익의 문학적 태도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박영준의 입장은 조연현이 우려하는
“이용물”로서의 문학과는 차이가 있다. 박영준은 “문학인도 나라를 사
랑하고 사회를 사랑하고 인민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통해 지금 해방 이
후 상황이 “문학실천”을 하기엔 부적절한 환경임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
문이다. 그는 좌우익의 “정치적 싸움”을 경계하지 않고, “정치○배경”과
“문단적 지위”의 남용을 경계한다. 이러한 싸움 속에서 “최다수의 지지”
를 통해 “조선문학을 육성발전시키기여 성실(誠實)을 아끼지 말아야한

34) 박영준, 「문학인의 성실 1」, 『한성일보』, 1946.03.20.

35) 박영준, 「문학인의 성실 2」, 『한성일보』, 1946.03.23.

36) 조연현, 「문학의 위기」, 『청년신문』, 1946.04.02.

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들을 종합하여 볼 때, 그의 관심사는 “조선 문학”과 “인민” 그리고 “나라”의 발전에 있었다. 박영준은 작품 속에서 “문학실천”의 한 방법으로 당대에 상실된 인간의 감정 문제와 인간성의 회복을 보여주고자 했다. 이때 인간성의 회복은 고쳐하는 인간에 대한 주제로 등장한다. 이것이 2장에서 박영준이 탐색했던 “새로운 모—럴”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을 견지하고 그의 작품을 보면 그가 해방 이후 발표한 작품에는 특히 애정에 관한 서사가 자주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손혜민은 박영준의 작품 속에서 “생활”의 윤리가 ‘연애/애정’ 관계를 통하여 등장한다고 보고 있다.³⁷⁾ 이 글에서는 박영준 소설에 나타나는 ‘연애/애정’ 문제를 인간다움 혹은 인간성의 회복으로 설명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시도는 백철에 의해 시작된다. 백철은 『풍설』을 지난해 최고의 작품으로 평가하고, 『회심기』를 “윤리적인 면을 붓드러서 성공한 일 단편”³⁸⁾이라고 평가한다.

『풍설』은 ‘인결’이 ‘미야’라는 여자를 좋아하게 된 이야기이다. 하지만 ‘인결’의 친구인 ‘한수’와 ‘미야’가 동거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마음을 숨기지 않는다는 사실이 문제가 된다. 이 소설의 주제를 단순히 애정으로 환원할 수는 없을 듯하다. 소설 곳곳에서 등장하는 표현들이 인간으로서의 고민과 신뢰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 예로 ‘한수’는 ‘인결’이 자신을 향해 표출한 경멸에 대해 “나는 너를 친구로 믿구 사상적으루두 꼭같이 민족을 사랑한다는 데 신뢰감을 갖”³⁹⁾고 있다고 말하며, ‘한수’에 대한 믿음을 표현한다. 또한 ‘한수’는 ‘인결’과 ‘미야’의 관계에 대한 질투를 전혀 느끼지 않는데, 이는 ‘미야’와의 관계에 대한 신뢰이자, 동시에 ‘미야’와 ‘인결’을 신뢰하는 모습이다. 이는 동료와 인간에 대

37) 손혜민은 “50년 이후의 작품에 이르면, 이와 같은 해소 가능성은 사라진 다”고 보며, “그의 소설 속 주인공들에게 ”생활“이라는 것은 ‘정치’의 대응이며,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어, ‘현재’와 ‘이곳’, 즉 정치담론으로 폐색된 해방기 시공간을 부정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라고 주장한다. 손혜민, 앞의 글, 179-181면.

38) 백철, 「구에 대한 반역」, 『조선일보』, 1949.07.19.

39) 박영준, 『풍설』, 『만우 박영준 전집 1』, 동연, 2008, 357면.

한 믿음으로 환원될 수 있다. 더군다나 “애정 문제로 새로운 인간성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일”⁴⁰⁾이라는 표현은 마치 작가가 앞으로 자신의 행보를 예고하는 듯하다. 즉 박영준에게 애정 혹은 사랑은 인간다움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회심기』의 경우 목사인 ‘병수’가 자신을 떠난 아내를 설득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하지만 아내는 시어머니와의 갈등으로 인해 ‘병수’에게 돌아오지 않고, 결국 다른 여자를 만나라며 이혼을 선언한다. 그 과정에서 ‘병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이 아닌 하나님에게 기도하는 모습만 보인다. 그러던 도중 자신의 동네에 이사 온 첫사랑 ‘영란’에게 마음이 동하게 되고, 영란의 남편이 죽은 뒤에는 ‘병수’는 목사로서의 본분과 사랑을 두고 갈등하게 된다. 결국 ‘병수’는 “주여, 나는 당신을 떠나려 하나이다.”라고 외치며, 사랑을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목사의 종교적 본분과 인간의 애정이 서로 충돌하여 결국엔 애정이 승리하는 모습은 인간의 고뇌를 담은 “새로운 모—랄”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윤락설』, 『희망은 살고』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등장한다.

박영준이 인간성 혹은 인간다움에 대한 고민으로 애정 혹은 사랑을 탐구했다면, 그러한 탐구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고뇌하는 인간의 모습 또한 인간다움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950년대 휴머니즘의 다층적 층위를 고찰한 최애순에 따르면 휴머니즘은 “1950년대를 타결해 줄 유일한 돌파구”⁴¹⁾였다. 박영준 또한 백철의 ‘신윤리’에 대한 생각을 이어받아, 문단 대립의 갈등을 돌파하기 위해 인간다움의 탐구를 소설의 방법론으로 추구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소설의 인물로 ‘애정’에 대해 고뇌하는 인간을 등장시킨 것은 휴머니즘의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좌·우가 정치적으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애정’을 다루고 있는 것은 인간이 가장 인간다울 수 있는 순간을 포착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회심기』의 병수가 목사의 신분을 버리고 사랑을 선택하는 모습은 신의 섭

40) 위의 책, 358면.

41) 최애순, 『1950년대 사상계와 전후 신세대 오상원의 휴머니즘』, 『우리문학연구』 제57집, 우리문학회, 2018, 407면.

리를 거슬러서라도 인간성을 회복하려는 휴머니즘을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박영준은 좌우 대립이나 갈등을 통해 자신의 문단적 위치를 재정립하려고 하지 않았다. 즉, 문학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지 않은 것이다. 그는 문학과 정치의 완전한 분리를 주장하지도 않았으며, 문학의 도구화를 선언하지도 않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간파’라는 명명이 붙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그는 좌우의 갈등이 아닌 문학의 본질적인 역할을 주목한다. 작품 속의 인물들이 보여주는 개인들의 고민은 “조선문학”을 “육성발전”시키고자 하는 “문학실천”의 일환이었다고 할 수 있었다. 박영준이 고뇌하는 인간을 다시 복원시키는 것은 인간성에 대한 탐구인 동시에 ‘정치’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을 증명하는 과정처럼 보인다.

4. 반공 수사(修辭)와 윤리의식

‘도강파’와 ‘잔류파’의 갈등을 언급한 회고에 따르면 그 당시의 분위기는 적(赤)치하에 서울 있던 ‘잔류파’에게 뿔뿔히 떨어진 있을 수 없었다.⁴²⁾ 박영준 또한 미처 도망치지 못하고, 서울에 잔류하게 되고 북한 괴뢰군에게 붙잡혀 강제 노역을 하게 된다. 그는 이 당시의 경험을 『전시문학독본』에 발표한다. 박영준의 글도 당시에 ‘잔류파’가 발표하였던 다른 수기들과 동일하게 “고백적 글쓰기”⁴³⁾에 해당한다. 반재영이 언급

42) “9·28수복이 되지 부역문단인명단을 게재한, 부산에서 발행된 팜플렛 형식의 조그만 잡지(그 지명이 기억나지 않는다)가 서울에 배포되었다. 이 잡지는 부산에 가 있는 문충계의 문단인들이 편집발행한 것이었다. 이 잡지에 게재되어 있는 부역 문단인명단에 의하면 박종화, 김동리, 최태웅, 조연현 기타 몇 사람을 제외한 서울에 잔류되었던 대부분의 문단인들이 거의 전부 부역자로 규정되었고, 그 부역의 등급이 A·B·C로 구분되어 있었다. A급은 적극적 부역, B급은 자진부역, C급은 소극적 부역의 표시였다. 잔류파는 그러지 않아도 풀이 죽어있는 때라 명단의 발표는 의외의 큰 충격이 되었다.” 조연현, 『내가 살아온 한국문단』, 어문각, 1997, 279-281면.

한 것처럼, “한국전쟁의 현장에서 마주친 붉은 청년들은 한편으로 공포스럽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모욕감을 주는 불쾌한 존재들”⁴⁴⁾로 등장한다. 박영준의 『노예의 노동생활』에서 묘사한 “붉은 청년들”도 마찬가지였다.

『노예의 노동생활』에서 묘사된 북한 괴뢰군은 그들의 비윤리성을 폭로하는 수식으로 가득 차 있다. 그가 북한 괴뢰군의 비윤리성을 폭로하기 전에 가장 먼저 고백한 것은 “땅을 파는 일에 종사”했다는 사실이다. 가장 먼저 자신이 국군을 죽이지 않았다는 고백이 선행되어야 ‘잔류파’로서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시작으로 “나이 이십도 못된 소위 분대장이란 애들이” 욕설을 한 사실, 위생 상태가 좋지 않아 “양치”를 하지 못하거나 “이 때문에 몸을 꺾”던 경험, “삼인 이상이 같은 시간에 변소”에 가야 했던 일들을 서술한다. 이러한 경험의 결론은 “북한사람들이 얼마나 불행하다는 것”으로 귀결된다. 그의 수기는 결국 이러한 반공 수사(修辭)를 말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노역의 경험과는 다르게 박영준이 묘사하는 서울은 “자유”와 “행복”과 “희망”의 공간이었다. 비윤리적인 인간에 대한 묘사는 자연스럽게 윤리적인 인간에 대한 묘사를 떠올리게 한다. 북한 괴뢰군의 비윤리적·비인간적인 모습은 “자유”와 “행복”의 공간인 서울에 있는 국군의 윤리적·인간적 모습을 상상하게 한다. 물론 강제 노역을 했던 노예에겐 풀려났다는 사실만으로도 자유와 행복과 희망을 노래할 만하지만, 전쟁의 화마가 지나갔을 서울이란 공간이 아직도 “아름답고 정다운” 공간으로 그려지고, 도착하자마자 “옷을 갈아입고”, “수업을 꺾”을 수 있는 공간 일리가 없다.⁴⁵⁾ 의도적으로 소거되고 과장된 반공 수사(修辭)인 것이다.

43) 유승환은 ‘잔류파’였던 유진오·백철·최정희의 수기를 통해 체제의 승인 및 행적의 정당화를 살핀다. 이때 보여준 논리가 회고록과 자서 소설에 등장하고, 이후의 글들에서 확대 재생산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유승환, 『잔류파와 도강파의 내적 논리와 ‘공모의 공간’으로서의 고백적 글쓰기: 한국전쟁기 체제승인을 위한 논리적 기예의 몇 가지 유형들』, 『우리어문연구』 제71집, 우리어문학회, 2021. 245-297면.

44) 반재영, 앞의 글, 226면.

45) 박영준, 『노예의 노동생활』, 김송 편, 『전시문학독본』, 계몽사, 1951, 70-76면.

한국전쟁기는 각 군에서 ‘종군작가단’이 설립되고, 정훈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시기였다.⁴⁶⁾ 이 시기 박영준은 육군종군작가단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 박영준이 육군정훈국에서 일하게 된 계기를 회고하는 글⁴⁷⁾에 따르면 그에게 ‘종군’하지 않을 선택권은 없었던 것 같다. 이미 합동수사본부에서 “지식수준이 높은 데다 각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반공문화전선에 동원하기로 결정한 것과 “부역문화인들의 회화와 자책”을 담은 『적화삼삭구인집』이 비슷한 시기에 나온 것으로 미루어볼 때 이러한 추측이 가능하다.⁴⁸⁾ 더군다나 박영준의 회고에 따르면 “일을 해줘야겠다”, “이 소령은 여유를 주지 않았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육군정훈국에서 일하기를 주저한 이유로 “현역 군인이 아닌” 자신의 처지와 작가로서의 정체성을 언급하는 모습은 이러한 의심을 거둘 수 없게 한다. ‘전향’ 선언을 한 박영준은 ‘전전’의 책임자이자 동시에 사상을 증명해야 하는 ‘전향자’의 위치였을 것이고, 육군정훈감실에서 일해야 한다는 제안을 거절하기는 더욱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후 그는 육군종군작가단에서 활동하며, 『전선문학』에 작품을 발표

46) 1951년 3월부터 6월까지 각군의 ‘종군작가단’이 설립되고, 이후 그들이 참여한 기관지가 발행되기 시작한다. 육군정훈감실 『국방』, 『승리일보』(국방일보), 『정훈주보』, 육군종군작가단 기관지 『전선문학』, 해군 정훈감실 『해군』, 『군항』, 『해병』, 공군 정훈감실의 『공군순보』, 『코메트』, 공군종군문인단 기관지 『창공』 등이 있다. 신영덕, 『한국전쟁기 군 기관지 소설의 특성』, 『전쟁과 소설』, 역락, 2007, 179면.

47) “한번 만나 인사를 한 것뿐인데 이 소령이 하루는 정훈감실에 와서 일을 해줘야겠다는 것이었다. 나는 고맙게 생각하면서도 생각할 여유를 달라고 했다. 그것은 현역 군인이 아닌 내가 군대 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가에 대한 회의감 때문이었다. 그리고 창작 생활에 시간적 제약을 받을 것도 생각했다. 그러나 이 소령은 여유를 주지 않았다. 내일부터라도 나와서 일을 시작해달라는 것이었다. 비석형도 나와 같은 부탁을 받고 그것을 승낙한 모양이었다. 나는 이 소령의 적극적인 태도에 거절할 수가 없어 비석형과 의논한 끝에 다음날부터 근무하기로 승낙을 했다.” 박영준, 『종군작가시절』, 강진호 엮, 『한국문단이면사』, 깊은샘, 1999, 445면, 강조는 인용자.

48) 유승환, 앞의 글, 264-265면.

하게 된다.⁴⁹⁾ 그는 심리전의 목적을 가지고 발간한 『전선문학』⁵⁰⁾에 소설 네 편(『암야』(1호), 『가을저녁』(2호), 『김장군』(4호), 『용초도근해』(7호)), 수필 두 편(『일만아는 R소령』(3호), 『민소장과 장병의 체력』(6호))을 발표한다. 그가 사무국장 직위를 맡았던 사실을 고려하더라도 다른 작가에 비하면 많은 양이라고 할 수 있다. 박영준이 『전선문학』에 문학을 많은 작품을 발표한 것과 한국전쟁기 약 16편의 소설을 발표했다는 사실은 단순히 작품활동을 열심히 한 것으로 해석하기엔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더군다나 그의 회고에 따르면 그의 일선 종군의 횃수도 다른 작가들에 비해 두 배 이상 많다.⁵¹⁾ 박영준이 보도연맹이 조직된 뒤 ‘전향’했다는 것과 1950년 8월 납북되어 10월 중순에 탈출했다는 ‘사실’로 미루어 볼 때, 한국전쟁기 왕성한 활동은 자신의 사상을 증명하는 ‘자기 증명’의 과정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에게는 또 한가지 중대한 임무가 있음을 자각하노니 그것은 전선과 후방을 연결하여 촌각의 괴리도 허락하지 않는 견결한 유대로서의 연락병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일선장병의 사기를 현양하게 하고 국민의 전의를 앙양**케하는 특수임무가 바로 이것이다. (강조는 인용자)⁵²⁾

49) 심리전의 일환으로 발간된 많은 군 기관지 중 의미 있는 성과를 보여준 것은 『국방』과 『전선문학』이다. 『국방』은 1949년 1월에 창간하여, 1950년 전쟁 발발로 잠시 발간을 멈추었다가 전쟁기에 25호, 그 이후 150호 가까이 발간되었다. 『전선문학』은 1952년 4월부터 1953년 12월까지 총 7권이 발간되었는데, 그중 2권은 휴전 이후 발행된 것이었다. 박태일, 『전쟁기 국방부 정훈잡지 『국방』의 정훈문학』, 『근대서지』 7호, 근대서지학회, 2013, 450면.

50)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간혹 1950년 중앙문화협회에서 발행한 『전선문학』을 육군종군작가단의 기관지인 『전선문학』으로 편입시키거나 1호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으나, 중앙문화협회에서 발행한 『전선문학』은 기존의 발행되었던 『문학』의 전시판이며, 발행인 김광섭, 편집인 김송으로 되어있는 것으로 볼 때 1950년 발행된 『전선문학』과 육군종군작가단이 발간한 『전선문학』은 구분되어야 한다. 이는 케포이박스에서 발행한 『한국전쟁기 문학·수기·제도 자료집』에서 제1집을 생략하고 발간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51) “최 상덕 57일, 김 팔봉 72일, 구 상 69일, 박 영준 180일” 박영준, 『종군작가 시절』, 강진호 편, 앞의 책, 458면.

최상덕이 이야기하는 “일선장병의 사기 현양”과 “국민의 전의 양양”은 당시 육군 정훈국 국장이었던 이선근의 주장과 매우 유사하다. 이선근은 『이념의 승리』에서 “단순히 무력의 승리가 아니라 이념의 승리로 서, 전 인류의 단결된 민주주의 철학의 승리라는 것을 구명하고 증명해 주어야 한다”⁵³⁾고 주장한다. 실제로 『전선문학』은 발행 목적을 달성했던 것으로 보인다. 약 3천 부 정도 발행된 『전선문학』은 일선장병 위문용으로 보급되었고, 일부는 일반인에게 시판되어 인기를 얻었다.⁵⁴⁾ 이러한 발행 목적은 구호가 아닌 실제 문학작품으로 이어져야 한다. 정훈국이 “선전과, 기획과, 보도과, 편집과” 등으로 구성되고, 그 아래 “선전대, 섭외대, 군악대, 미술대”⁵⁵⁾ 등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로 ‘중군작가단’을 구성했다는 사실은 정훈국의 ‘구호’보다 대중이 이해할 수 있는 작품이 필요했음을 말해 준다.

그런 점에서 박영준이 『전선문학』에 발표한 작품 중에는 ‘선전’을 목표로 하면서도, 소박하게나마 인간성에 대한 탐구를 포함한 것들이 있다. 『암야』의 경우 형인 국군 임 대위와 포로로 잡혀 온 동생 임경재의 이야기이다. 형은 당연히 포로로 잡혀 온 동생이 빨갱이가 아닐 것이라 생각하지만, 결국 동생이 공산주의자임이 밝혀지고, 임 대위는 도망치는 포로가 자신의 동생이라는 것을 알고도 권총으로 쏜다. 그 과정에서 등장하는 수식들은 개인의 고뇌를 보여주기보다 민족과 국가를 앞세운다. “부하들이나 사랑해! 그것이 민족을 사랑하는 것일게요. 개인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 아니겠소!”⁵⁶⁾라는 대대장의 말이 등장한다거나 “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군기를 위반하는 일”⁵⁷⁾이라는 표현 등으로 볼 때, 『암야』는 ‘선전’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선전’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암야』는 비윤리적 인물(임경재)과 윤리

52) 최상덕, 『창간사』, 『전선문학 1』, 1952.04, 이 글에서 인용되는 『전선문학』은 국회도서관에서 제공하는 판본이다.

53) 이선근, 『이념의 승리: 결전문화인에게 격함』, 『문예』, 1950.12.

54) 서동수, 앞의 책, 190면.

55) 이임하, 『적을 빼라로 물어라』, 철수와영희, 2012, 63면.

56) 박영준, 『암야』, 『만우 박영준 전집 2』, 동연, 2008, 57면.

57) 위의 책, 60면.

적 인물(임대위)의 대비적 묘사가 돋보인다. 임경제는 포로 중에서도 끝까지 대항하며 김 일등병을 쏜 “빨갱이”이자, 자신의 형에게 “독이 오른 뱀의 눈”을 하고 대드는 사람으로 묘사된다. 반면 임 대위는 자신의 동생을 위해 눈물을 흘린다거나 동생의 마지막을 위해 먹을 것을 챙겨주는 등 형으로서 면모를 다하는 인물로 묘사된다. ‘선전’이라는 목적의식이 있는 이상 ‘빨갱이’와 ‘국군’의 수식은 극명하게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 당시 박영준이 인간성 또는 윤리적 인간에 대한 고민을 표현할 수 있는 방식은 『암야』처럼 좌우의 대립으로 인해 형제를 쏠 수밖에 없는 비극을 주제로 삼는 일이었을 것이다. 『가을 저녁』이나 『김장군』은 그 정도도 반영하지 못한 ‘선전’용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전선문학』에 수록된 박영준의 작품 중 인간성과 윤리의식을 전면적으로 표현한 작품은 『용초도근해』이다. 『용초도근해』는 주인공인 ‘용수’가 포로 수용소에서 ‘김정갑’에 대한 인민재판에서 김정갑에게 6개월 영창을 제안한 죄의식 때문에 용초도 근해에 도착하기 직전에 바다에 빠져서 자살한다. 『용초도근해』의 주인공인 ‘용수’가 자신이 한 일을 반성하고 괴로워한다는 사실로 볼 때, 이 시기 박영준 작품 중 유일하게 윤리적 의식을 제대로 보여준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남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는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동시에, 그로 인해 괴로워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를 자살로 마무리한 것은 다소 ‘선전’에 가까운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자기 동포를 배신한 ‘용수’를 국민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선전’의 의도가 반영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⁵⁸⁾

이와 같이 박영준의 윤리의식에 관한 탐구는 인간다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다. 한국전쟁 당시 가족과 동족을 죽일 수밖에 없는 슬픔을 ‘선전’의 차원에서 표현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선전’을 위해서는 가족과 동족을 죽여서라도 유지해야 하는 정치적 신념을 강조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영준은 『용초

58) 그나마 『용초도근해』에서 보여준 인간의 고뇌와 윤리의식은 휴전 이후 발간된 『전선문학』 7호에 수록된 작품이어서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도근해』를 통해 윤리의식에 대해 고민한다. 부끄러움과 죄의식을 느끼는 인물을 등장시킨 것은 ‘선진’을 넘은 인간성 회복을 추구하려는 모습으로 보인다. 이러한 박영준의 인간다움에 대한 탐구는 고뇌와 윤리의식의 모습으로 등장하며, 이는 전쟁 상황에서 다시 인간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보여준다. “전후문학에서 휴머니즘은 주로 전쟁을 통해 잔혹하게 분열되고 해체돼 버린 인간성을 직시하는 동시에 그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⁵⁹⁾이라는 분석처럼, 박영준은 인간성에 대한 회복의 염원을 작품 속에 투영하였다. 이와 같이 박영준은 인간성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휴머니즘이라는 차원에서 휴머니즘의 방법론이라고 볼 수 있다.

5. 결론

박영준은 해방 이후부터 중군작가단 활동을 마칠 때까지, 총 세 번의 ‘자기 증명’을 진행하여야 했다. 첫 번째는 일제강점기 시절 만주협화회에 근무했던 이력으로 인해 발생한다. 당시에는 박영준이 일제에 부역했다는 사실이 밝혀지지 않아 수기나 고백의 형태로 진행되진 않았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죄의식으로 인해 일제강점기 당시 작품활동을 소거시키거나 정당화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당화의 방식은 『환향』이라는 작품에서 잘 나타난다.

두 번째 ‘자기 증명’은 해방 직후 좌익 문단 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전향’에 대한 것이다. 이 당시 박영준은 적극적인 좌익 문단 활동을 보여주진 않았다. 그가 『문학의 성실성』이라는 글에서 보여주는 태도는 문학의 정치적 도구화가 아닌 인민과 문학인들을 위한 방향 탐색에 가까웠다. 당시 폭력적인 ‘전향’으로 인해 ‘전향 선언문’을 작성하였고, 과거처럼 농촌·농민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없었으므로, 새로운 문학적 방향을 탐색하여야 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새로운 모—럴”을 탐색

59) 김선주, 『하근찬 소설의 휴머니즘과 전통적 질서의식』, 『한국문예비평연구』 제64집, 한국문예비평학회, 2019, 186면.

하게 되고, 이는 백철의 “신윤리”와 유사한 방향으로 나타난다. 이 방향은 인간의 고뇌를 탐구하는 방식으로 『풍설』, 『회심기』 등에서 나타난다.

세 번째 ‘자기 증명’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뒤 도망치지 못하고 북한 괴뢰군에게 잡혔던 경험 때문에 발생한다. 이는 ‘잔류파’의 수기 및 고백과 비슷한 형태로 나타난다. 그는 『전시문학독본』에 수록된 『노예의 노동생활』을 통해 반공 수사를 강화하고, 이후 종군작가단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앞서 두 번째 ‘자기 증명’ 당시 탐색했던 고뇌하는 인간에 대한 주제가 소극적인 형태로 전환된다. 이는 ‘전향’작가이자, 포로가 되었던 경험 때문에 전쟁 당시 사람들의 고뇌를 적극적으로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는 종군작가단이 발간한 『전선문학』에서 ‘선전’이라는 형태로 다시 어려움을 겪는다. 그나마 이러한 ‘선전’과 잘 결합된 인간에 대한 고뇌와 윤리의식을 보여준 작품이 『용초도근해』였다.

요컨대 박영준은 세 번의 ‘자기 증명’ 과정을 통해 자신의 사상을 검증해야 했으며, 그 과정에서 탐색된 ‘휴머니즘’을 자신의 문학적 방향으로 삼는다. 이는 인간에 대한 신뢰와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한다. 그는 인간의 고뇌와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을 표현한 문학 작품을 추구하지만 한국전쟁 당시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없었다. 『전선문학』이라는 기관지의 목적성과 그가 자신의 사상을 계속해서 증명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이다. 휴전된 이후에는 『용초도근해』의 주인공인 ‘용식’의 윤리의식을 통해 인간성의 회복하려는 의지를 보여주었다. 이와 같이 박영준은 해방 이후 자신의 문학적 방향을 휴머니즘의 방법론으로 일관되게 유지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방법론의 영향은 백철의 ‘신윤리’와 휴머니즘론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탐색하지 못한 백철과 박영준의 영향 관계에 관한 규명은 추후 연구로 남긴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박영준, 『만우 박영준 전집 1-6』, 동연, 2002.

송영 편, 『전시문학독본』, 계몽사, 1951.

『경향신문』

『조선일보』

『청년신문』

『한성일보』

『백민』

『문예』

『민고』

『우리문학』

『전선문학』

2. 논문

권영기, 「박영준의 농민소설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7.

기무라 겐지, 「협화회 연구의 성과와 과제」, 『한일민족문제연구』 제34집, 한일민족문학회, 2018.

김선주, 「하근찬 소설의 휴머니즘과 전통적 질서의식」, 『한국문예비평연구』 제64집, 한국문예비평학회, 2019.

김종욱, 「박영준의 만주 체험과 귀환소설」, 『한국현대문학연구』 제58집, 한국현대문학회, 2019.

——, 「강서 적색농민운동과 박영준: 「일년」을 중심으로」, 『구보학보』 제22집, 구보학회, 2019.

김준현, 「1950년대 전향자: 문인의 자기서사 재구성 양상」, 『현대문학의 연구』 제64집, 한국문학연구학회, 2018.

박운자, 「박영준 농민소설 연구」, 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5.

박태일, 「전쟁기 국방부 정훈잡지 『국방』의 정훈문학」, 『근대서지』 제7집, 근대서지학회, 2013.

반재영, 「붉은 청년과 반공의 교양: 한국전쟁기 젊음(적)의 재현과 성장(전향)의 서사」, 『한국문학연구』 제65집,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21.

- 서영인, 『박영준 문학과 만주: 박영준 문학세계의 연속성 탐구를 위한 시론』, 『한국근대문학회』 제12집 2호, 한국근대문학연구, 2011.
- 손혜민, 「단정 수립 이후 ‘전향’과 문학자의 주체구성: 박영준의 해방기 작품을 중심으로」, 『사이(SAI)』 제11집,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2011.
- 신영덕, 「박영준의 전쟁소설 연구」, 『개신어문연구』 제22집, 개신어문학회, 2004.
- 유승환, 「잔류파와 도강파의 내적 논리와 ‘공모의 공간’으로서의 고백적 글쓰기: 한국전쟁기 체제승인을 위한 논리적 기예의 몇 가지 유형들」, 『우리어문연구』 제71집, 우리어문학회, 2021.
- 이보범, 「단정수립 후 전향의 문화사적 연구」, 『대동아문화연구』 제64집, 성균관대학교 대동아문화연구원, 2008.
- 조은정, 「해방 이후(1945~1950) ‘전향’과 ‘냉전 국민’의 형성 ‘전향성명서’와 문화인의 전향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8.
- 최애순, 「1950년대 사상계와 전후 신세대 오상원의 휴머니즘」, 『우리문학연구』 제57집, 우리문학회, 2018.
- 표언복, 「역사적 폭력과 식민지 지식인의 주체분열: 박영준 소설의 ‘만주’ 인식 방법」, 『어문학』 제104집, 한국어문학회, 2009.
- 한홍화, 「박영준 해방 전후의 만주서사와 그 의미」, 『한민족문화연구』 제50집, 한민족문화학회, 2015.

3. 단행본

- 김윤식, 『한국근대문학사상비판』, 일지사, 1978.
- 김인옥, 『한국 현대 전향소설 연구』, 국학자료원, 2002.
- 박기동 외, 『황소걸음-스승 만우 박영준을 기리며』, 동연, 2008.
- 박민규, 『해방기 시론의 구도와 동력』, 서정시학, 2014.
- 서동수, 『한국전쟁기 문학담론과 반공프로젝트』, 소명출판, 2012.
- 신영덕, 『전쟁과 소설』, 역락, 2007.
- 이임하, 『적을 뼈라로 물어라』, 철수와영희, 2012.
- 조연현, 『내가 살아온 한국문단』, 어문각, 1997.

<Abstract>

Self-justification and Humanism as a Convert

- Focused on the works of Young-Jun Park in the post-liberation era -

Lee, Byeong-Ju
(Korea Air Force Academy)

This paper examines the three big ‘자기 증명(self-justifications)’ of Park Young-Jun in his post-liberation works. The first is a justification to reject his pro-Japanese activities. Park discards all of his works that are produced during the Japanese occupation to build a ground of an argument that he has been completely kept away from the writing career during this period. In addition, he insinuates the inevitability of his pro-Japanese activities through the protagonists of 『환향(Return Home)』 who work for the Japanese Empire.

The second is a justification to move away from his left-wing membership. Park is considered as a ‘중간파(neutral)’. After the liberation, he seeks to orient himself in a new literary direction, which is supposed to be influenced by Baek Cheol’s ‘신윤리(New Ethics)’. Park, later, releases the Humanistic works that reflects his personal agony and relationships.

The third is a justification motivated by his experience of hard labor, as a prisoner of the Korean War. Such justification has been unfolded through the Anti-communist depiction in 『노예의 노동생활(The Labor of the Slaves)』. Although, 『전선문학(War Front Literature)』 is known for being heavily biased, Park successfully dissolves his sense of ethics through the Anti-communist depiction

in 『용초도근해(The Coastal Sea of Yongcho-Island)』. The three big ‘self-justifications’ contextualize Park’s endeavors to seek Humanistic methodology that holds personal agonization under the changes in the stream of time.

* Key Words : Humanism, a convert, Park Young-jun, left-wing membership, Self-justification, propaganda, Baek Cheol’s New Ethics.

** 이 논문은 2021년 11월 28일에 투고되어 2021년 12월 7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1년 12월 10일 편집위원회를 통해 게재가 결정된 논문이다.

이 름 : 이병주
소 속 : 공군사관학교
직 위 : 조교수
전공분야 : 현대문학(현대비평)
석사논문 : 김규동 시론 연구
대표논문 : 『시의 원리』와 『시학평전』에 나타난 ‘동양’과
‘순수’ 인식의 비교
이 메 일 : blue_sky36@naver.com